

## 화려함을 거부한 정직한 관리가 중요

- 옥산목장(2006 최우수상 수상), 최우수 위용 당당히 지켜

취재 및 정리 : 안 희 경 (농수축산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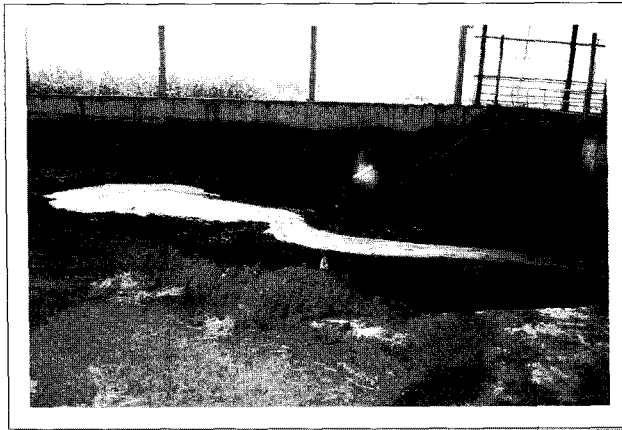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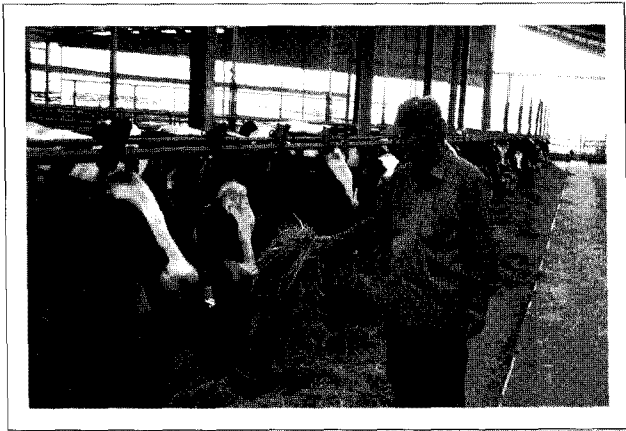


옥산목장은 충분한 조사로 생산기반을 확보해놓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2006년 탄탄한 인프라 구축과 자연순환형 낙농에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상인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전북 고창의 옥산목장. 3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이 있을까. 최우수 목장의 위용을 당당히, 자신만만하게 지키고 있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우수목장으로 선정되기 전에도 선정된 후에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깨끗한 목장이 아니라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목장이 깨끗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달라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김춘수 옥산목장 대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목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소비자에게, 목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자식과



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낙농인이 되기 위해서 하루  
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목장  
을 갈고 닦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젖소들  
을 돌보고 축사를 둘러보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것  
은 온전히 김춘수 대표 내외  
의 몫이다. 노년에 접어든 나  
이에 몸이 버거울 정도로 힘  
겨울 때도 있지만 천직으로  
살고 달려온 낙농업에 타인  
의 손을 빌기는 싫다는 것이  
그의 뜻이다.

2006년 깨끗한 목장 선정  
당시, 하드웨어적으로 완벽  
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목  
장과 사양환경이 우수했었던  
옥산목장은 착유시설은 물론  
축사 한쪽에 일렬로 정돈된  
농기계까지 '깔끔' 그 자체  
다. 부부가 꾸려나가는 목장

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다.

착유우 52마리를 포함해 총 130마리 규모의 우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우사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퇴비사의  
축분은 넓은 용량을 자랑하며 충분히 발효, 전량 조사료포에 살포된다.  
어디하나 흠잡기 어렵다.

그러나 조경이나 화단 조성 등이 다른 목장에 비해 인색한 것은 사실이  
다. 대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자연이 내려준 환경미화가 있다. 목장  
옆으로 펼쳐져 끝이 안 보이는 9만9000㎡의 조사료포는 숨 막히게 푸른  
색으로 덮혀 있어 그 어느 꽃보다 화려하다. 젖소가 배출한 분뇨는 100%  
조사료포에 뿌려지고 조사료는 일체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깨끗한' 목장이다.

김춘수 대표는 인근마을의 청소년 가장돕기도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좋은 일은 내세우면 안되는 법이라며 입을 닫는 사람이다. 목장을 꾸려나가는 것도 그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예쁘게 보이려고 목장을 가꾸본 적은 없습니다. 꽃은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심는 것뿐이죠. 대한민국을 짊어질 내아들, 내 손자가 먹을 우유입니다. 깨끗하게 생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소비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니까 그것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김춘수 대표는 정직함과 양심을 잣대로 목장을 꾸려나가고 있다. 굵은 주름이 가로 새겨진 그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세월만큼 그는 낙농의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

젖소들과 함께하는 그의 손길에는 위선이 없다. 식사를 할 때 쓸 수저를 깨끗이 설거지 하듯 내 가족, 내 우유를 먹을 소비자들을 생각하면서 착유시설을 청소한다. 짜낸 우유를 바로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우유, 진짜 ‘깨끗한 우유’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는 세련되지 않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농장을 자랑하지도 못한다. 자랑하지 않는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옥산목장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목장과 젖소들만이 아니라 목장을 일구는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한 목장을 만났다. 역시 어디로 보나 최우수감이다. ☺

